불자님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
불자님이 원하는 생활대중불교의 신화를 만들겠다



'한불련' 스님 200여 명과 신도 5천여명이 참석한 취임 대법회

'한불련' 전국신도회 윤을암 중앙신도회장 취임식에는 전국신도 5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종일관 환희심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상메시지와 여 · 야 정당 대표들의 축사 그리고 지역 기관장님이 대거 동참했으며 전국에서 축하화환 200여개가 답지했다. <사진= 이풍호 프로작가>

'한불련' 전국신도회 윤을암 중앙신도회장 취임법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이하='한불련')는 지난 9월 9일 사천 와룡산 백천사에서 전국신도회 윤을암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윤을암 전국신도회 중앙회장(이하=회장)은 취임사에서 "초심을 견지하면서 차별없는 실천으로 오직 전법, 포교를 위해 정진하겠다"면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은 오로지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합리적인 전법포교만이 살길이라"고 역설했다.

윤 회장은 "불교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활력을 주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국불교의 미래가 있다"면서 "새로운 불교발전도 이러한 인재들로 함께 할 때 더욱 예측가능하고 발전적일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불교의 숨겨진 보물이자 우리 불교의 정신적 스승이 될 만한 인재들이 새로운 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지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뜻을 모은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눈 밝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고민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포교사 인재만 외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퍼러다임이 가능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지금의 현대사회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춘 시기 적절한 유능한 포교사의 육성이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윤을암 신임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한국불교 융성의 새 역사를 쓸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전국신도회 중앙회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윤을암 신도회장>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한국불교의 무궁무진한 미래전략의 발전을 위해 생활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인재를 육성 발굴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능력있는 인적자산과 천재적 발상을 하는 인재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데 인색했지만 이러한 때에 전국신도회 중앙회장으로서 눈 밝은 선지식들과 함께하여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여 한국 불교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윤 회장은 "능력있는 포교사 육성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시대에 한국불교 포교사 육성에 대한 책임을 가진 진지한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포교사 육성에 대한 한국불교 종책사업이 근본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윤 회장은 "비록 지금은 한국불교 포교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낸 불자들이다"면서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한국불교 융성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회장은 "모든 한국불교 불자들이 대한민국의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을 구체화하고 동체대비 정신을 구현하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향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속에 실천하여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사회의 토대를 만들어 그 토대위에서 불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불자님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종단간의 갈등과 문중의 파벌로 인해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리 모두 불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고 설파했으며 "전국 불자님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변화를 열어 불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만들어 우리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나누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 도약의 계기로 삼자

백천사에 머무르며 조상을 천도하고 불심과 하나가 되다

佛 心

"자비만신(慈悲滿身)의 화신(化身)도량 백천사!
요익중생의 복전을 회향하고 있습니다."



"
권속들이 영가를 위해 재를 올리고 복을 심어주면
그 공덕의 절분의 일은 영가에게 가고
절분의 육은 살아 있는 이에게 있느니라.
〈지장본원경 이익존망품〉



△ 와룡산 백천사 법당 내부 전경 및 만덕전 법당 나만봐 부처님 전경 등 조상위패 모형.

백 천 사 BAEKCHEONSA
세계최대 약사와불 몸속법당 와룡산 백천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TEL : 055)834-4010 FAX : 055)835-4271